

1. 사진을 잘 찍는 방법

가. 카메라와 친근해지기

안내선의 도움을 받아 TV처럼 촬영하기
렌즈를 깨끗이 하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카메라로 익숙하게 기록한 다음
같이 보면서 즐거워 하고
카톡, 문자, 메일로 바로 보내주기
항상 지니고 다니고
필기구처럼 사용하고
매뉴얼을 수시로 보고
연습하고 흉내 내기
카메라가 준비할 시간 / 반서터 이해하기



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1) 겉과 속이 다른 웃음 / 촬영 당하는 마음 이해하기

할아버지 카메라의 교훈
왜 촬영하는지 궁금해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어디에 사용할 건지 궁금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2) 촬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기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
질풍노도의 사춘기 학생들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주름진 얼굴 뒤편에 찍냐는 어르신들

다. 렌즈의 방향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긍정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집중하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잠깐의 수고
가난한 어린시절의 큰 선물
개인의 성장을 기록한다는 사명
기관의 미션을 기록한다는 사명



라. 사람들을 카메라에 적응시키기

ICE breaker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

Recreator 새롭게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기념이 되는 / 추억이 되는

마. 촬영에 대한 권한 획득

수많은 카메라중에 '돌려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수많은 카메라중에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은 없다.

바. 어떻게 돌려줄 건지 궁금해

1) 사진을 돌려주는 방법 - 사진 찍어 '주는' 사람

촬영즉시 액정 바로 보여주기
 같이 보며 즐기기 - 빔프로젝터, TV, 컴퓨터, 노트북, 액자
 인화하기 - 즉석인화, 동네 사진관 인화, 온라인 인화
 즉석 전시, 상영 - 촬영한 사람과, 출연하는 사람 모두가 즐기기
 전시회
 기념이 되는 사진책, DVD, USB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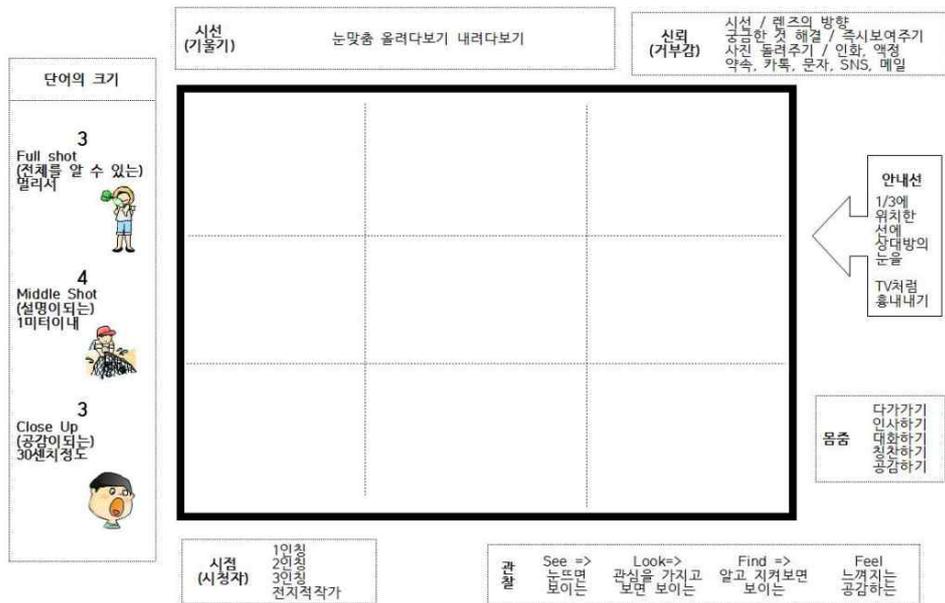
2) 같이 보며 즐기는 상영

로비의 TV, 빔프로젝터를 활용하기
 빠른 시일내 프로그램 안에서 상영하기
 모두가 보며 즐거운 상영회
 유튜브와 SNS를 이용해서 보고, 공유하기,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사. 관계를 담은 뷰파인더

눈높이
 시선
 거리
 기울기
 신뢰
 시점

관계를 담은 뷰파인더



사진을 찍히는 속마음

왜 찍는걸까? 어떻게 돌려줄건데?
사진 찍어줄게



갑자기 모델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할아버지께서 식사하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셔서 포즈를 부탁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음 지으며 사진을 찍히면서 제 마음 속에서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상은 하실까? 카메라가 작동은 하는 걸까? 요즘 세상에 누가 필름을 맡기고, 찾아서 줄까? 손도 많이 떨리시던데,...그냥 잘 웃어 드려야지’

사진 속 저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 속은 사진을 찍히는 순간에 불신이랄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 장로님은 사진을 찍으신 후 가방 속에서 사진 멍치를 꺼내어 예전에 찍었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결과 속이 다른
사진을 찍히는 마음에는
그 동안
사진을 찍히는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나름대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 경험을
주시겠습니까?

순간 저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면서도 잠시나마 마음 속과 다른 표정을 지은 것이 부끄럽고, 내가 찍는 수많은 사진속의 사람들 표정들도 내가 느꼈을 묘한 감정들이 담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병광 -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진이 인화되어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인화하여 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예전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화하여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걸, 사진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고맙습니다. ^^ 10.02.23

* 최선경 - 사진을 찍고나서 주인공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것만.. 사진찍은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고 현상하여 돌려주는 모습이 본받을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어르신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지만 게시판에 전시만 하고 어르신들께 돌려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 본인의 사진 기다리는 어르신이 많은 걸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10.02.24

* 황양수(대구대) - 찍고나서 보내줄 것도 아닌데 사진 찍기가 많이 민망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드려야겠네요. 10.02.24

그리고 보니 저희 집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야 카메라를 구입했으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활동으로 사진동아리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앨범을 보면,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습니다.



백일, 돌사진 같은 거야 사진관에서 찍었을 것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그 존재가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야기가 녹아있는 사진입니다.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진 (지금도 그 동네를 가면 사진속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될까 자꾸 눈여겨 봅니다.)



사진 찍을 때 들고 있던 음악책을 잃어 버려서 혼났던 일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 영화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 형, 아내와 아이들, 친척들의 옛날 이야기가 샘솟습니다.

카메라도 없는데, 앨범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어떻게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외삼촌, 막내이모, 옆집, 교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그림자로 나온 그 누군가가 고맙게도 저에게 아주 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돌려받는 일이 많아서 카메라가 없어도 앨범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카메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진을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후 인화해서 돌려주면 상대방은 훌륭한 모델이 되어줍니다.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지면서 오히려 사진을 돌려 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인지 모델이 되는 것이 성가신 일이되고, 초상권 같은 인식이 강해지면서 사진을 찍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 줄게’ 라는 말그대로 사진을 잘 돌려주는 것 만으로도 최고로 훌륭한 사진작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찍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좋은 것은
 찍고, 액정으로 보여주면서 줄 수 있고,
 눈 앞에서
 문자, 메일, 카톡, SNS 로도 전송할 수 있으니
 조금만 입장바뀌어서 돌려주다보면 사진을 잘
 찍어준다(잘 돌려준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 보이는 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요

2. 높이, 거리, 기울기를 다양하게
3. 인간관계와 인물 사이즈에 대한 이해
4. 안내선의 도움을 받자

카메라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

“분명히 좋아보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은 예쁘지가 않아요. 난 카메라에 소질이 없나봐요” “내가 가진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사진이 찍히질 않아요. 돈 좀 모아서 좋은 카메라 사면 멋진 사진 찍어야지”

사진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소질을 탓하거나, 카메라 성능을 탓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람의 눈을 따라올 수 없는 카메라 렌즈의 한계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진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 앞에 펼쳐진 멋진 자연이나, 상황을 그 위치에서 카메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한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사각형의 틀을 만들어서 보이는 만큼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눈이 보는 것을 카메라로 표현하려 하면 사물이 너무 작게 표현되고, 넓게 보려하면 둥글게 왜곡이 되거나, 멀리 보려하면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예 좁은 영역만 표현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렌즈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면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풀샷 위주의 사진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이 한 눈에 보이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한 쪽 눈을 감은 것 같은 렌즈의 성능으로는 아예 눈이 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쌍안경처럼 렌즈가 두 개 달린 카메라도 나와 사람의 눈과 최대한 가까워 지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을 예를 들어 카메라의 제한된 시야를 설명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만난 한 자동차 내부의 사진인데요, 보통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 왼쪽 백미러부터 오른쪽 와이퍼의 끝부분까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18mm 렌즈로 보면 왼쪽 백미러와 함께 룸미러도 보기 힘들고, 아이폰 5, 갤럭시폰의 카메라로 보면 더욱 좁은 영역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카메라로 눈이 보는 것을 표현하려면 사진인지 비디오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진의 경우에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왼쪽 백미러, 가운데 룸미러, 계기판, 오른쪽 백미러, 전방 시야, 기어변속 하는 손, 가속페달...)



비디오의 경우에는 일정시간동안의 화면의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약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씩 왼쪽 백미러에서 전방으로, 룸미러에서 전방으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면의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을 해야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컷의 비디오로 여러분의 소중한 프로그램과 일상을 기록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사이즈의 장면들로 표현해 보세요. 전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풀샷 =>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는 미들사이즈의 샷, 클로즈업 샷 => 다시 전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풀샷의 순서로 기록을 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때, 오히려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과 새로운 시선을 카메라로 표현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 보다 더 집중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 보이는 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요
 - 2. 높이, 거리, 기울기를 다양하게**
 3. 인간관계와 인물 사이즈에 대한 이해
 4. 안내선의 도움을 받자

자 이제부터 카메라로 기록할 때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카메라의 상황에 변화를 줍니다.

1. 눈높이를 맞추는 게 기본
2. 마음의 시선 - 올려다 보기, 내려다 보기
3. 궁금한 걸 해결하는 줌인, 줌아웃

낮이를 변화시키거나 (붐업, 붐다운-카메라를 들고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남)



가까이 멀리 (몸인, 몸 아웃-몸이 앞으로 다가가거나, 멀어짐)



카메라의 기울기 (로우앵글, 하이앵글, 버즈아이 뷰)를 다르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사진을 못 찍는 게 아니라, 눈이 보는 것을 카메라가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렌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쁜, 멋진 장면도 렌즈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면 어디를 보여줘야 좋을까?”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사진작가’입니다.

스마트폰을 방송장비처럼

1. 소중한 목소리를 녹음하고
2. 현장의 분위기를 녹음하고 / 바닷가, 운동장..
3. 부담되지 않는 카메라
4. 그러나 전화기임을 잊지 말고

고급기능의 카메라가 기관에 있어도

정작 중요한 사진들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능좋은 카메라 보다,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사용해 보는 공용의 카메라 대신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작동이 쉬워 그 역할을 대신할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기관에 비치된 공용카메라의 경우는

매뉴얼을 보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서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애써 가지고 간 카메라가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메모리를 두고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 렌즈의 먼지, 손자국을 확인해보세요

‘왜 내가 찍으면 항상 흐릿하게 나오지?’ 궁금하신 분은 렌즈를 확인해 보세요



카메라처럼 전용 파우치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 있고, 옷에 넣어 다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부분이 지문, 먼지, 화장 기름기 같은 것이 묻어 있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의 한 부분으로 렌즈를 살짝 닦아 주세요.

2. 사진을 기록할 때

친한 친구와 사진을 찍을 때처럼 똑같이 당사자들과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 1) 친구야~ 기념인데, 사진 찍자
- 2) 우스게 소리를 하며 ‘찰칵’
- 3) 어떻게 나왔나 보자 (머리를 맞대고 액정을 이리 저리 돌려 봄)
- 4) 맘에 안 드네 다시 찍을까?
- 5) 이 사진 나 갖고 싶어
- 6) 응, 카톡으로 보내 줄게

스마트폰은 사진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속의 주인공에게 어떻게 사진을 돌려주지 고민할 필요없이 카카오톡, 문자, SNS, 이메일로 눈 앞에서 사진을 보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려주는 행동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사진 잘~ 찍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사진을 인화해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한 친구와 사진을 찍고 같이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당사자와 사진을 같이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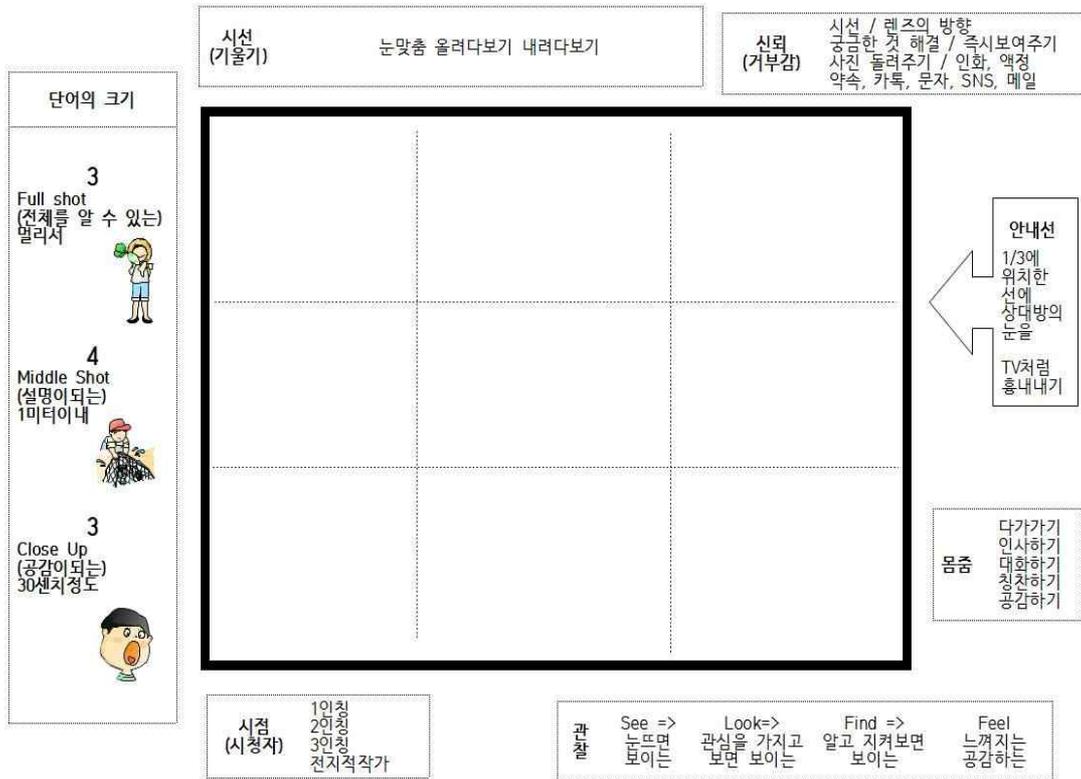


3. 사진을 좀 더 잘 찍고 싶으면,

카메라의 격자(안내선) 기능을 표시해서 인물사진을 찍을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세로 두 줄, 가로 두 줄로 표시된 격자의 윗선에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을 가까이 맞추면 TV속에 나오는 인물 사진 같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관계를 담는 뷰파인더



세로로, 가로로, 가까이, 멀리 다양한 사이즈로 변형해 가면서 나만의 편한 구도를 만들어 보세요.

4. 비디오를 기록할 때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진행되는 공연을 기록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담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로보다는 가로로 기록을 합니다.

인물을 촬영하게 되면 세워서 비디오를 기록하는 걸 보는데, TV로 보게 될 때는 누워 있는 사람 화면을 보게 되어 고개를 한 쪽으로 젖히고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편집할 수 없는 장면이 되어 촬영하고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잡음이 녹음되는 것에 주의하세요.

홈버튼이 있는 쪽의 마이크 부분에 작은 접촉과 긁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녹음됩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동작이 잡음을 일으키진 않는지 주의하세요

3) 동영상녹화는 3초에서 5초 정도만 기록을 합니다.

노래같이 끊이지 않는 공연을 제외하고, 상황들을 화면을 보게 될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이 무얼까 생각하며 기록합니다. 줌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는 배터리방전이 금방되고, 메모리 용량도 많이 차지 합니다.
기록 후엔 자료를 백업하며 용량을 비워 줘야 합니다.

5. 소리를 녹음할 때

사회복지기관에서 소리를 녹음해두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문해교실에서와 같이 낭송을 하는 프로그램,
동아리나, 노래교실같이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
귀여운 아이들의 노래소리 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카메라를 낮설어 하는 이용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음성메모 기능을 이용한 녹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녹음된 소리를 같이 들어보면 듣는 이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영상 촬영에 앞서, 녹음부터 해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녹음하다 보면,
나중엔 카메라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리포터 역할을 맡겨보면서 녹음을 하면 즐거운 소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녹음하려는 소리에서 10센치 정도에 마이크(스마트 폰의 홈 버튼쪽 아랫부분)를 대세요.

다시 듣고 싶은 강의를 녹음하고,
필기를 대신하거나, 메모할 수 없을 때 녹음하고,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의 육성을 기록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금만큼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단) 녹음을 할 때 비밀녹취와는 다르니 반드시 당사자에게 허락을 구하도록 합니다.

6. 주의할 점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은 '손안의 방송장비'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기능을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 전화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기록을 하다가.. “여보세요? 하고 모든 걸 중단하고 급히 행사장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기록을 한다면 기관의 공용 카메라를 이용해 기록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스마트폰으로 기록한다면, 배터리 여유를 체크하고, 전화가 오지 않도록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

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도록 익숙해 지는 연습이 아직은 필요할 것 같네요.

2. 업무를 잘 기록하는 방법

가. 객관적인 기록

전체적인 Full Shot
누가, 언제, 어디서
멀리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보통 사람의 눈 높이로

나. 설명하는

주관적인 Middle Shot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까이서
눈높이를 맞춰서
시작, 중간, 끝

다. 공감하는 기록

감정적인, Close up
무엇을, 어떻게, 왜
아주 가까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 중간, 끝, 끝난 이후, 새로운 시작 전

3. 감동적인 기록을 하는 방법

가. 보이는 것에서 공감하는 것까지 기록 하기

1) See 보이는 것의 기록

구도
거리
기울기
눈높이를 다르게

2) Look 관찰한 것의 기록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작고, 낮게, 느리게 바라보기

3) Find 발견한 것의 기록

용기 내어 말 걸기
거절당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이 되거나
경청하기
사실, 설명의 기록
대화의 기록

4) Feel 공감의 기록

오랫동안 문화가 되어 버린 것의 기록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나도 그런 적 있어'의 감정 이입의 기록
진정성의 기록
목소리, 독백

5) 나에게 말을 걸어 주세요 버튼

나. 상황에 맞는 기록 미디어 선택

사진
영상
현장음
목소리
배경, 효과음
텍스트
그림

다. 친근한 카메라맨이 되기

경청하는 카메라맨 되기
자랑하고 싶은 걸 들어주기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기

업무를 잘 기록하는 원리

1. 열장의 사진으로
2. 전체적인 기록 / 멀리서
3. 설명을 하는 기록 / 가까이서
4. 공감을 하는 기록 / 아주 가까이서
5. 행사의 구성요소 기록

열장의 사진(영상)으로 업무를 기록한다면
3:4:3 비율로 사진을 찍자!

	객관적인 기록(3)	설명하는 기록(4)	공감하는 기록(3)
사진 속 피사체 사이즈	Full Shot 	Middle Shot 	Close Up Shot 
카메라와 찍히는 사람과의 거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행사장의 앞, 뒤 	상황을 알 수 있는 보통의 인관관계를 맺는 거리 행사장의 중간 	가까이 다가가는 1미터 이내의 거리 참가자와 밀접한 
촬영자와 찍히는 사람과의 관계	공식적인 	공식적인/아는사람 	친근한/공감하는 
프로그램 시간대별	시작, 중간, 끝	시작 전, 중간, 쉬는 시간, 끝난 후	중간, 쉬는 시간, 끝난 후, 일상
사진의 용도	보고, 증빙, 보도	과정, 서비스 설명	상상, 공감, 이야기 거리, 사례
사진에서의 눈 높이	성인어른의 눈높이 높은데서 내려다 보기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상대방 입장에서의 바라본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영상단어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그냥 발품을 팔 것이 아니라 위의 비율처럼 객관적인, 설명하는, 공감하는 사진을 골고루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객관적인 사진은 누구나 기록할 수 있지만, 설명하고, 공감하는 사진은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1. 한 눈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Full Shot, Start Final Cut, 단체사진, 기념사진, 몇명이 왔구나, 장소 넓으네. 전체적인, 개회식, 폐회식등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찍은, 모두 모여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를 보세요, 플래카드 잘 붙잡아 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행사장의 앞, 뒤에서 전체적인 인원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촬영', '취재' 이런 네임택을 착용하고 다니면서(아! 저 사람이 오늘 촬영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게합니다) 행사 시작전 부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 쉽게 촬영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행사를 압축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행사에서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진입니다.

2.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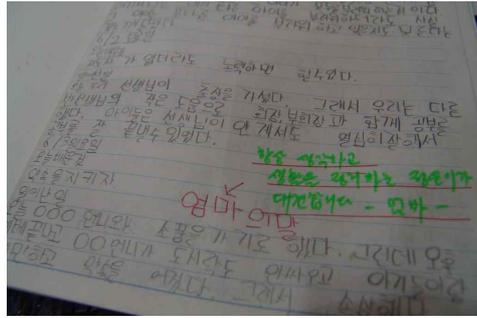
(Middle Shot, Bust Sho, Waist Shot, KneeShot, 2~3Shot, GroupShot) 누가, 어떻게, 무엇을,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는, 의견이 표현되는, 인터뷰, 참가자의 태도, 노트 필기 모습, 경청의 다양한 리액션들, 프로그램 속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참가소감



아이들이 무언가를 적고 있네 / 아! 방학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 설명하는 기록은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발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블로그에 후기 같은 것을 올릴 때 이런 사진이 많으면 사진의 나열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3. 그래서 그렇구나 공감하게 하는 기록

(Close Up, Tite Bust, Big Close Up, Feel Cut, Heart View,) 왜, 어떻게, 이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하는, 노트필기 내용, 슬픔 기쁨 분노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소품,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 가나요?



카메라 앞에서 네, 아니요, 그냥요.. 짧게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면 술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트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질문들을 찾아내면 함께 해온 선생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섬세한 힌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진을 나열하면 훌륭한 보도자료가 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콘텐츠가 됩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객관적인, 설명하는, 공감하는 내용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있는가?

연구하고 비슷하게 써보다 보면 훌륭한 보도자료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일 '꿈의 독창무대' 서는 홀트일산복지타운 문경화양

[동아일보 2005-11-01 04:37]



[동아일보]

“도산이에(동산 위에) 오아서서(올라서서) 파라아느을(파란 하늘)...”

어색한 발음에 틀리기 일쑤인 음정이지만 수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며 돼 꿈만 같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의 혼성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단원 문경화(17) 양. 정신지체 1급이면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녀가 3년 동안 노래 한 곡을 외워 15일 오후 7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독창을 한다. 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자리에서다. 곡목은 '하늘나라 동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낮은 문 양이 노래 한 곡을 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두툼한 책 한 권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공감하는 글귀의 제목
호기심 유발

공감하는 상황의 묘사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객관적인 상황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감동을 기록 하는 원리 / 시인과 같은 마음

1.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
2. 사례 '청주사회복지관 신바람 노래교실'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는 차도 옆.
머리핀과 악세사리를 파는 노점의
파라솔 밑에서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네~'



중년 남자의 목소리로 소화하기 힘든 양희은의 노래가 들리더니
'넬라 판타지아, 마이 웨이' 같은 팝송도 흘러 나옵니다.



누가 보는지 상관 않고 아저씨는 높은 고음 부분에선
아예 차도로 몸을 틀어 가사를 표현하는 듯한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하이라이트 부분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와 경쟁하듯 버스와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지
나갑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거리 연습을 하는
황진규(60) 님은 몇일 전 마을 축제에서 '그리운 금강
산'을 노래하며 마을의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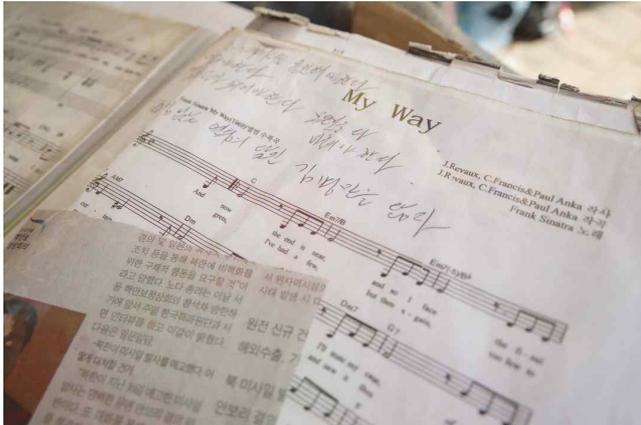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길을 가다가 노점상의 노래에 귀 기울인 사회복지사
가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청했기 때문
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던 아저씨는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영국의 핸드폰 가게 점원이었
던 Paul Potts가 부른 노래 'Nessun Dorma -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열심히 연습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아저씨의 'My Way'

'끊임없는 연습의 달인 김병만을 닮자' 라고 쓰셨네요..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봐요?
악보집 버튼을 누르자 30년동안 좋아한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악보마다 노래를 향한 아저씨의 마음들이
빼곡히 글로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회복지현장을 가보면 잠깐만 있어도 이야기 소재가 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방송작가가 와서 본다면 다양한 방송 콘텐츠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야기 소재가 가득한 기관에서는 카메라는 있어도 무엇을 찍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용자의 의견이나 소감을 중요시 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에 맞게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록보다는 기관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면 자연스러운 '우리 기관 사람들' 이야기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를 들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청하려면, 먼저 세심한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거지?'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이나, 고집스런 자기만의 주장이나,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말을 걸면 기꺼이 대답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는 사진 (SEE)

지켜봐야 발견하는 사진(LOOK)

아는 만큼 보이는 의미를 알아차리는 사진(FIND)

'그랬구나' 공감하는 사진 (FEEL)

이 중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FIND), 그랬구나 공감하는 (FEEL) 힌트들이 바로 말을 걸면 대답하기 버튼입니다.



See
(아이가 뭔가를 보네)



look
(나무에 뭐가 있니?)



Find
(어머 새끼 사마귀 안녕?)

그 버튼이 어디에 있나 잘 찾아서 여러분의 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겠습니까?



신림동의 이웃사랑 빨래비누 할머니

“할머니 빨래비누가 인기가 좋은 가봐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빨래비누’ 버튼을 누르자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나는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만들어.
젓물, 옥시크린, 슈퍼타이하고,
박카스병에 들은 거 하고, 단골도 꽤 있어.."

자기가 만들어 파는 물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 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비누가 세상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국 아저씨의 정말 튼튼한 손잡이

전화설치를 위해서 오신 아저씨의
가방손잡이 버튼을 누르자

오랜 시간동안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온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면
어디에서든 티가 납니다.

할아버지 오토바이에 종이컵이 달렸네요?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건 새컵
이건 커피를 마시다 놓고,
이건 다 쓴 컵



감동을 기록 하는 원리 / 시인과 같은 마음

1.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
2. 사례 '청주사회복지관 신바람 노래교실'

노래속에 삶의 이야기를 담아요
신바람 나는 노래부르기/청주사회복지관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
상아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아~~아~~아~~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시계바늘 / 신유 노래]



한 시간 전부터 강당에 앉아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어느 새 팔십 명 정도 모여 의자가 부족하다 하신다.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시간이 뭐 대단하다고 이리도 많이 모이실까 의아
했는데, 선생님의 노래 가락 한 마디 한 마디에 '옴지, 옴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
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¹⁾' 라고 첫 곡을 띄워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는
'어느 날 살며시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의 집짓고 사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영수증을
써주라고'²⁾ 몇 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열아홉 가슴 설레던 소녀시절로 돌아가
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마음 바쳐 사랑하고, 한 몸 되어 피어나는 장미꽃 한 송이'³⁾처럼 어르신들의 상기된
얼굴은 금방이라도 누군가에게 사랑고백을 할 것만 같은 표정으로 지그시 눈을 감으며
좋았던 시절을 떠올린다.

1) 시계바늘 / 신유 노래
2) 영수증을 써줄거야 / 신유 노래
3) 장미꽃한송이 / 오승근 노래



강사는 짓궂게도

‘고갯길 가득한 인생은 고추보다 맵다 고4)’ 정신 바짝 들게 하면서 이 부분의 가사와 곡조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여기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삶속에 있던 고개들을 하나 하나 짚어주며 고갯길을 넘어간다.

애써 고개를 넘어보니 ‘매화피고, 배꽃 핀 매창 공원에 홀로 남겨진 이별의 슬픔을 시와 노래로 달래보자고.... 여러분은 모든 매화꽃, 배꽃 같은 여자’5)라고 위로하면서 ‘모란꽃 동백꽃은 꽃이 지면 잊혀지지만 여러분의 상냥한 얼굴, 웃는 얼굴은 잊지 않을 거라고’6) 노래 하며 어느새 강당에서 노래하고 있는 현실로 사뿐히 돌아오게 만든다.



“노래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노래선생님, 요가선생님 잘해주시고 좋지 기분 좋지.. 야!~~ 좋지”
 “스트레스 풀고 여럿이 만나서 웃고, 선생님이 웃기시잖아 너무 재미있어서 이 시간에 꼭 와요”
 “마음이 후련해요 고함치고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다 풀어 원래 처녀 때부터 노래자랑도 많이 나갔잖아 상도 많이 타고 원래 좋아하니까”
 “집에 있다가 여기 오면 즐겁고 행복하지, 집에서 우뚝하니 있는 거보다 ...”
 “한 동네 사는데 너무 즐거워요, 기쁘고. 노래 한 번 해볼까?
 헤이 헤이 헤이.. 바람 부는 세상아 헤이 헤이 헤이 돌고 도는 세상아~”
 “아유. 진짜 감사해요. 집에 있으면 고민뿐이 더해요? 여기 오니까 즐겁고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엄청 좋아요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옛날 노인들보다 행복한 거여”

낮선 카메라 앞에서 실컷 노래교실 칭찬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보니 오늘도 수차례 부른 노래를 으뜸으로 꼽는다.

4) 고추 / 유진아 노래
 5) 매화같은 여자 / 최영주 노래
 6) 모란동백 / 조영남 노래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니
쓰라린 사연하나 가슴에 없으면서 어찌
인생을 안다 하겠니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만
만하다면 그것 또한 재미없는 거잖아
진흙탕 속에도 뒹굴어보고 가시밭길도
걸어봐야지
인생의 제 맛이 진하게 우러나지 먹어
봤나 눈물 빵 눈물 젖은 빵’⁷⁾

쿵쾅 쿵쾅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들어 본 조금은 경박한 박자와 목소리 톤 때문에
평소에 알아듣지 못했던 노래가사가 어찌나 내 싱금을 울리던지
하루 잠깐을 만나도 중독성이 있는데, 8년째 노래로 어르신들을 만나는 강사는
과히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주는 신(神)

배운 사람처럼 조리 있게 이야기 하지 못해도 노래마다 실려 있는 나의 가슴 속 사연
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맘껏 외치는 경험을 하게 하니 한 시간씩 일찍 와서 강사와 마주보
는 앞좌석에 큰 의미를 두고 나 같아도 부지런을 떨며 집을 나설 것 같다.



노래선생님을 만난 지 8년째 된다는
홍종국 할머니(85)와 우연히 동
행해 집을 방문해 보니

서랍에서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노래교실 개근상장과 악보들을 꺼
내어 보여준다.

스프링에 묶여 있던 악보의 헤진
부분을 가위로 손질하고, 테잎으로

붙여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곡마다 담겨진 추억을 할머니는 같은 곡조로 몇 가지 노
래를 불러주신다. 아니 읊어 주신다.

‘사랑의 밧줄로 뽕뽕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뽕뽕 밧줄로 뽕뽕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⁸⁾

7) 눈물 젖은 빵 / 고영준 노래

마흔일곱의 나이에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가슴에 묻은 아들 이야기를
커피 한잔 타주면서 담담히 얘기하던 할머니의 속마음을 대신해서
헤쳐가는 악보가 듣는 이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과 같게 한다.
기쁠 때, 슬플 때, 심심할 때,.. 그 마음을 대신해주는 노래들을 한 장 한 장 쓰다듬으
며
할머니는 넘쳐나는 고마움을 어찌할 줄 몰라 매일의 축복 기도로 대신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다가온다.

청주복지관 노래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 정승오강사님이 진행해주십니다.
영상은 www.youtube.com/visualwelfar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일차 비디오 카메라 워샵

4. 영상단어의 이해

가. 보이는 대로 기록할 수 없어요

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
여러 장면으로 표현하는 카메라

나. 컷으로 되어 있는 영상의 이해

1) 컷의 이해

고정된 컷
고정된 컷의 적당한 길이는?
눈치 채지 못하는 움직임
시작-움직임-끝의 기록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되돌아 가거나, 주저하지 않는
말을 끊지 않는 목소리의 기록
명사, 대명사
꾸미는 형용사

2) 목적이 있는 움직임

둘러보듯이 (패닝)
주목하듯이 (주밍)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주밍
위아래 훑어 보듯이 (틸업, 틸다운)
구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임

3) 컷으로 되어있는 영상보기

뮤직비디오

뉴스

영화

4) 문장이 되는 움직임

사람이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는 누구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5) VJ식 카메라 워킹

가까이에서 찍기

따라가기

질문하기

설명듣기

설명내용 기록하기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사회복지 영상기록의 기초

비디오의 기록은

촬영하는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사람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어 사람과 사회의 성장, 변화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사진기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기록과 보고에 익숙한 도구라면,

비디오기록은 서비스를 통해 생겨난 문화적인 현상이나 이용자의 의견을 담을 수 있어 양방향적인 소통에 가까운 도구입니다.

촬영자의 시점에 영향을 받고, 편집과 상영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사진기록과 함께 비디오기록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진 촬영과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비디오 촬영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단어’를 기록합니다.

(상황을 조각조각 컷 단위로 기록합니다.)

녹화버튼을 눌러 기록(REC)하기 시작해서 다시 대기(STBY)상태가 될 때까지의 녹화를 영화에선 '숏', 방송에선 '컷', 동영상 편집에선 '클립' 이라 합니다.

비디오를 기록할 때 녹화(REC) 상태로 쉼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초~5초 정도의 여러 컷들로 장면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장면을 녹화한다면, 공간에서 책을 읽는 모습(3초), 책의 모양과 제목(3초), 책장을 넘기는 손(3초), 글을 읽는 얼굴 표정(3초), 어깨너머로 책 읽는 모습(3초), 공간에서 책 읽는 사람의 모습(3초) 같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듯이 비디오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할 땐 나누어 하지만, 재생하면 화면이 연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방송되는 영상을 자세히 보면, 끊겨 있는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 *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컷의 수를 세어보기
- * 영화, TV드라마, 뉴스 컷의 길이가 몇 초 인지 시간을 가늠해 보기

같은 화면이 몇 초정도 유지되면 시청자가 지루해 할까요?

여기에서 ‘화면이 같다’는 것은 화면 안에 움직임이나, 이야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세미나 등을 기록한 영상을 보면 한 개의 컷으로 60분 테이프가 다

할 때 까지 고정된 화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CCTV 녹화영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기록은 녹음자료로도 쓰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시청자가 3초 이상의 같은 화면을 지루해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장면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컷 단위로 기록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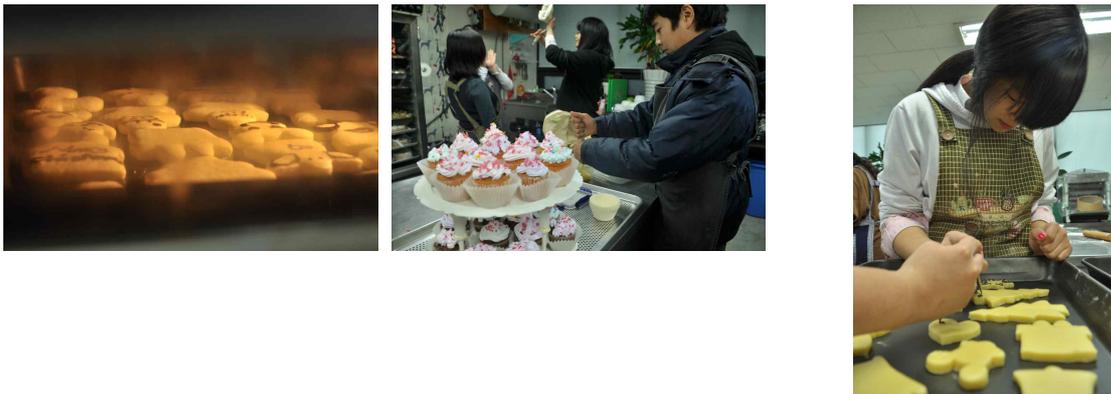
1) 미용봉사

미용실 전체 풍경 / 준비 / 미용 도구를 펼치고 / 의자 세팅 / 기다리는 사람 / 미용서비스 중의 대화 / 가위질 하는 손 / 떨어지는 머리카락 / 거울속의 얼굴 이런 식으로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2) 제과교실

프로그램실 모습 / 앞치마 두르는 수강생 / 반죽 / 과자 모양 / 꾸미기 / 오븐에 넣기 / 오븐 안에서 익어가는 모습 / 포장



3) 양재프로그램

프로그램실 전체 모습 / 참여하는 사람들 개인, 그룹 모습 / 바느질 손동작 / 재단하는 모습 / 가위질 / 강사의 설명

여러분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여러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봅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나누어 기록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촬영을 하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 흔들림을 시청자가 알아차리면 영상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청자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고정된 화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정석이나, 내용에 따라 움직임을 통해 의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공간 전체를 보여주기(패닝)

- 카메라를 옆으로 돌아보는 (패닝)은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마음속에 정해 놓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기록합니다.

2) 궁금증을 해결하는, 연역법 혹은 귀납법의 표현

-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의 일부였다. (줌 아웃)
 - 전체 모습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이것이다.(줌인)
 - 카메라가 가까이 혹은 멀리 움직이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틸다운), 아래에서 위(틸업)를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 몸인, 몸 아웃

- 아무리 좋은 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여도 줌을 대각선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카메라를 든 몸이 가까이 다가 가거나 멀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영상단어와 문장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카메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익숙한 필기구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화면과 녹음된 목소리가 어색할지라도,



기록된 내용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수록
영상으로 된 단어와 문장은 점점 세련되어질 것입니다.

영화감독이나, 방송국PD가 책상에 앉아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을 매일 접하는 사람의
조금은 서툰 진짜 영상기록이 분명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TV속 인물의 사이즈와 인간 관계의 거리(Distance)의 느낌

객관적 거리 - 같이 있어도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는 거리(Distance), 풀샷(Full shot), 니샷
(Knee shot, 무릎샷) /

풀샷(Full Shot) - 모르는 사람과 있어도 편안한 거리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약 1미터 50센치미터 정도면 될까요? 이정도 떨어져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전신이 다 보
입니다. 이것 풀샷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물을 촬영할 때 전신이 다 나오게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정관념
을 깨면 훌륭한 사진 기록이 됩니다.

기념사진 같은 것을 기록할 때 풀샷 위주로 기록하는데, 감정을 담고 싶으면 사이즈의 변화를
취보세요. 기념사진에도 감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니샷(Knee shot) - 팔을 휘저어도 닿지 않을 정도까지의 인간관계를 객관적 거리라고 합니
다. 1미터 정도까지 다가와도 사람은 무릎까지 보이네요.



네명, 다섯 명 정도의 인원을 기념사진 찍을 때 전신이 아닌 니샷(Knee shot)으로 촬영해보세
요. 한결 분위기가 좋은 사진이 됩니다.

주관적 거리 - 웨이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샷 / 같은 공간에 있는데, 상대방의 존재가 부
담스럽게 다가오는 거리

웨이트샷(Waist shot) -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허리띠 정도
까지 보입니다. 이게 보통 뉴스 아나운서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리입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거리입니다.
 객관적인 느낌의 인터뷰,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을 이정도로 표현합니다.

바스트샷 (Burst Shot) - 팔로 상대방을 휘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바스트샷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부부, 연인, 가족으로 제한 되겠죠.



솔직한 심정을 인터뷰 할 때, 어느 정도 진실이나, 감정표현이 필요한 인터뷰의 인물사이즈입니다.

한 화면 속에 2명~3명 간신히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사이즈입니다.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선택할 때 사진 속 인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즈업샷(Close up Shot) - 코가 서로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의 인물 사이즈입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험은 거의 없고, TV로만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눈이 나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드라마 주인공의 연기를 보고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는 이유는 이렇게 가깝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클로즈업 장면을 통해 기쁨, 슬픔, 놀람, 화남, 탄 생각중인, 지루한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 한다면, 어느 사이즈의 영상으로 표현해야 할지를 응용하면 됩니다. 얼굴만 클로즈업 할 것이 아니라, 손이나, 소품 등을 클로즈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Hands Ready 카메라를 든 손 익숙해지기 연습

1)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담는 방법 - 고정샷, 사진을 찍듯이

두 손과 얼굴, 팔꿈치, 기댈 곳 이용하기

손과 발, 따뜻한 시선과 미소로 다가가기

2) 목적이 있는 움직임을 담는 방법

낮설지 않게 움직이기

움직이는 시간 배분 / 화면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게 일정한 움직임

A->A1 구도를 유지한 채 변화를 기록

A->B 움직이면서도 구도를 유지

3) 보논이의 궁금함을 해결해주는 구도의 변화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둘러보는 패닝

위 아래 설명하는 틸팅

점점 확대해 보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주밍

화면에 빠져들게 하는 팔로잉

VJ처럼 기록해보기

4) 영상 단어, 문장의 기록

명사, 형용사, 동사

은유, 상징

명사+명사, 형용사+명사, 명사+동사

가다, 오다

5) 영상 시점의 기록

나는, 너는, 그들은

관찰자, 객관적, 주관적 시점

거리감의 변화, 시점의 변화

6) 열장의 단어(컷)로 문장 기록해보기

전체적인 객관적인

설명하는

공감하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라. Foot, Knee Ready 카메라의 앵글 변화주기

1) 발바닥이 닿도록

미용사가 머리 깎을 때 처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꿇었다 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나서기

2) 대중에게 다가가기

대중 속의 주인공을 찾아라
잘 웃고, 반응 잘하고, 집중하고, 표정 좋은
시작 전부터 친근한 사람 - 스텝인줄 알았어요

3) 개인에게 다가가기

미리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기
그룹에게 다가가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을 찾아

마. Lips, Ears, Friendly Face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기, 경청하기 연습

부드러운 표정으로
경청하기
잘 듣고 있다는 신호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잡음처럼 녹음되는 대답 주의
상대방의 표현에서 질문 찾기

바. Eyes, Mind Ready 보고, 발견하고, 느끼는 바라보기 연습

See 남들 다 볼 수 있는
Look 지켜보면 보이는
Find 알고보면 보이는
Feel 문화적인 현상
시인처럼 바라보기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 찾기

사. 카메라가 있는 상황(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텔런트가 아닌 사람들
'다시 한 번 해주세요'가 불가능
반응이나 대답을 예측하고 준비하기
잘 웃는 사람은 금방 웃는다.
남이 써준 대사가 아닌 자기 이야기는 자연스럽다.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를 보세요' 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아. 이유있는 기록

함께 보고 싶은 순간이어서
방금 했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궁금해 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 부모, 가족, 친구, 후원자,
나중에 보면 감탄할 나의 모습 / '내가 그랬어?'
성장을 볼 수 있는 꾸준한 기록

자. 꼭 해야하는 기록

진행에 대한 설명
업무의 기록
객관적인 기록
성과의 기록
미션의 기록

차. 미디어를 고려한 프로그램

촬영을 고려한 프로그램
상영을 고려한 프로그램
훗날의 촬영, 상영을 고려한 프로그램
예상치 못한 상영, 자료화면의 필요

카. 프로그램별 예

캠프
지적장애인 생활
청소년
노인
공연, 발표
장애인 작업공간
노래교실
처음, 첫날, 마지막 날
인식개선
...

타. 각자의 프로그램 촬영 계획

어떤 영상 단어들이 있는가?
어떤 영상 문장이 있는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있는가?
프로그램 촬영계획 /

또 낮선 모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간다
(연세 세브란스 소아암 환자 여름캠프 촬영기)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부담을 가지면서도 나는 어느새
능청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다.



“이번 캠프 촬영을 하게 된 사회복지사 이성중입니다.
이 캠프에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활발해 보이는 여학생에게 카메라를 들이밀며
능청스럽게 캠프 주제부터 이것 저것 물어본다.

당연히
카메라를 낮설어 하면서 손으로 가리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운이 좋으면 처음부터 잘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다.



“기린아 인데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아픈 아이들과 캠프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린아가 뭐대요? 알면서 다시 물어본다.
“기린아는 소아암을 앓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년에 한 번 있는 캠프를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느낌이 좋다.
이 사람 저 사람 카메라를 들이밀 때 둘에 하나 대답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2박 3일 동안의 일정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처음 촬영을 하자는 제의를 한 김선화 선생님은
10년이 넘도록 캠프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기록이 없는 이유가
환우와 가족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위기가 좋다.

아직까지 아픈 아이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버스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버스 뒷자리에 앉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가장 먼저 말을 걸기가 쉽다.
짧다는 이유만으로도 훌륭한 사진이 될 것 이고,
낯설지만 사진을 찍어준다고 했을 경우 좋은 반응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찍은 사진을 얼른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 좌석으로 옮겨 가면서
인사를 나누면 말을 걸기가 쉬워진다.



예상대로 한 좌석 한 좌석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가 오간다.

고등학생인데 캠프내내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역할을
한 친구들이다.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기는 환우 혹은 환우의 형제의
모습.

사실 이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무척 긴장 했었다.
처음 만남인데, 거절하거나 불쾌해 한다면 나는 아마
도착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때 까지
버스 뒷자리 좌석에 앉아서 조용히 갔을 테니까..

첫 아동을 촬영하고 나니 자연스레 맞은 편 좌석으로 카메라를 돌리
게 되고, 엄마와 아이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다.

이제부터 인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뒷자리에서부터 소란스럽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소리를 듣고

‘아 내 차례가 되었구나’ 대비를 하게 되고,
사람들 반응에 맞게 짧게 스쳐가듯 사진을 찍어주거나,
아이들과 인사를 하면 되니까





처음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카메라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는데, 맞은 편이 언니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되었다.

게다가
카메라 마이크를 둘러싸고 있는
털모양에 호기심이 생겨
쓰다듬어 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느라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덕분에 조용하던 버스안에서는
난데없이 아이들이 내는 퀴즈를 맞추느라 진땀 빼는 어른과의
대화소리에 웃음이 넘쳐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나는 어느새 버스 바닥에 주저 앉아
아이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이렇게 버스안에서의 소개는 한 시간 만에 끝나고
적어도 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 만큼은
낮선 카메라맨에 대한 궁금증은 사라지면서
앞으로 있을 캠프에서의 촬영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
가 될 것이다.



강당안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자리잡아 간단한 게
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 얼른 다가
가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옆으로 옆으로 옮겨 가면서 카메라맨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가 보이면
자리를 바꿔 다른 가족에게로 다가간다. 때론 포즈를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게 되면, 카메라맨을 소개할 때 쯤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캠프 기간 내내 밀접한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어느 정도 인사가 되었으면, 행사에서 느슨한 시간이 있을 때 찍어놓았던 사진 중에 같이 보면 좋아할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 사진속의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들 개별화 된 사진이나, 그룹 사진을 고르고, 가능한 중복되는 인물이 많지 않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즉석으로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 옆에는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준비해놓고 사진에 대한 피드백을 적을 수 있도록 하면 캠프 기간 내내 참가자들이 와서 사진을 보는 것을 즐기고, 소통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카메라맨이 무엇을 왜 촬영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전시를 하면 살며시 다가와서 '저희 가족 안찍혔어요. 좀 찍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듣게 된다.

캠프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촬영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 기록된 내용을 보면 좋아할 만한 개개인과 가족의 표정을 담는 것에 초점을 둔다.

경직되기 쉬운 단체사진 촬영의 경우도 앞서 모두에게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맺은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은 인원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룹으로 '친한 사람' 들끼리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면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재미난 기념 촬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생동감이 있는 사진기록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뛰어 들어 기록한 것이다.



재미있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습을 기록해 주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물속에서 놀면 같이 물 속에 놀면서 기록하면 되고
운동하는 속에 들어가서 있어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
니라 같이 즐기는 카메라맨이 되면 좋은 사진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울동을 하고
춤을 출 때 화면이 흔들리게 녹화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은 카메라맨이 앞을 가려도 불편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거워 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것을 '투명인간 효과' 라고 한다.
분명히 내 앞을 가리는 카메라맨이 있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루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저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된다.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에 담겨있는 '공감' 꺼리들을 잘 캐치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가자들의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야 말로 이런 캠프를 하는 목적을 설명해주고,
이 캠프를 직접 와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아이들한테도 유익하고, 둘다 아픈 아이인데 그 아이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따
뜻하게 감싸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재는 장애아야
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있는데, 불편해 하거나, 재는 왜 저래? 이런 것 없이 어디가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애를 불편해 하면 어떨까.. 인상을 찡그리거나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런 것 없이 불편하지 않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본이 시키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기록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NGO기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캠ป์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끼자랑’ 코너인데,
환우들의 공연은 무대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
도 귀한 이야기 거리가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담을까
오디션을 하고,
틈틈이 연습을 할 때 눈여겨 보고 기록하면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참가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된다.

플롯을 연주하는 친구의 마스크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첼로를 가지고 캠ป์에
참석한 우정을 알아 차리게 되고,
이왕이면 훌륭한 연주를 기록하기 위해 연습시
간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가족의 추억이 되는 기록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진과 영상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와서 물어본다.

“이 사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캠ป์마지막 날 영상으로 상영을 할 거구요.
DVD 매체로 만들어서 사진화일들과 영상을 담아서 드릴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둘째 날 저녁 잠을 잊고 부지런히 편집을 시작한다.

2박3일 동안 4시간 30분의 동영상과 약 천장의 사진
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추리고, 같이 보면서 즐거워
할 장면들을 고르다 보면 약속된 상영시간이 금새 되
어 버린다.

캠ป์의 마지막 프로그램 ‘영상상영’ 시간이 되고
처음 올 때처럼 짐들을 꾸려온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언제 나오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로 즐거워 한다.



2박3일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영상으로 돌아보면서 '아 저랬던 적이 있었지.. 하고' 바라본다.



캠프를 왜 하나고 묻는다면.. 나는
 추억을 하고 다시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병원에서 지루하게 자기 병마와의 싸움을 하는 아픈 아이들이
 정말 즐거웠던 캠프를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주변사람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한다면,
 2박3일동안의 나의 수고는 기꺼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새벽 2시.
 영상편집을 하다가 피곤해서 밖에 나가보니
 늦은 밤 모닥불 옆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부모
 님들이 맥주 한 잔 건네면서
 최고의 칭찬을 해준다.



“3년차 오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카메라맨이 오셔서 밀착카메라..
 모든 분위기를 몸에 베이듯이
 이 모든 환우들의 가족들의 분위기를 파악했다는 듯이 섬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컷트 컷트 하실 때 참 너무 고맙습니다.
 가족적인 분이 카메라맨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고맙고 순간 순간 포착하는데 있어서 동시적으로 잠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고, 이런 추억이 있었구나를 바로 포착해서
 뒤르박에 걸어주시니 너무 카메라맨한테 감사합니다.”

사투리 가득한 아버지의 쑥스러운 칭찬을
 또 듣고 싶어서라도
 또 캠프에 가야만 할 것 같다.



파. 촬영과제 / 실습 - 일주일간 영상기록 해보기

프로그램을 정해서
객관적인, 설명하는, 공감하는 장면들을
골고루 다양한 영상단어로 기록하기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기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기
베가스 프로그램 설치해 보기

3일차

사회복지 다큐멘터리를 꿈꾸며

5. 편집 안한 영상물 상영회

과제 영상 같이 보기
화면이 흔들리는 이유 알기
잡음의 불편함 알기
소음
깨끗한 소리의 녹음 방법 알기
습관적인 잡음 줄이기

가. 편집의 욕구 / 아이디어 나누기

영상의 4요소를 활용한 편집 구상
화면
말
현장음
효과음/음악

나. 베가스 편집 프로그램의 이해

편집을 위한 소스 정리
한 폴더안에 체계적으로 소스를 모아놓기
비디오, 사진, 음악, 데이터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
페이드 인 아웃
투명도와 볼륨 조절
자르는 단축기 S
가리거나 늘리기
목소리는 살리고 음악은 줄이고
사진에 움직임 주기
자막넣기

다. 시청자를 고려한 편집

시청자가 현장에 있는 것 처럼
궁금해 할 것을 보여준다.

라. 영상문법

화면이 된다는 건
단어와 단어가 만나 문장이 되는 원리
연역법, 귀납법, 은유의 표현
화면의 전환방법
소리가 우선

마. 작품상영 및 소감 나누기